6-Episode Seasonal Series

SOULRID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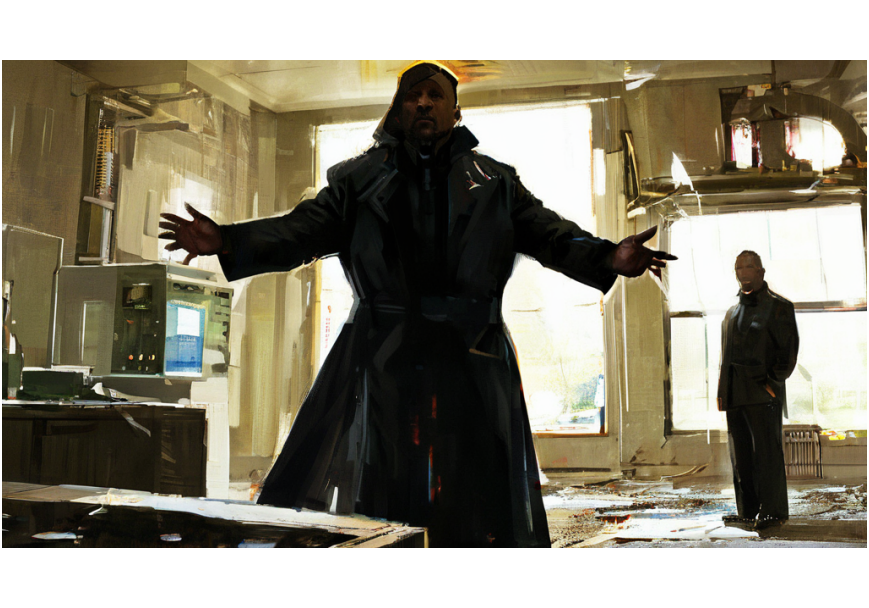
❖

"한재호에게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피해서 당신은 스스로 죽음을 택한 거고, 할아버지에게 기술을 넘겨서 나를 복제해낸 건가…요?"

동녘의 말끝을 흐렸다. 백호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지, 태도를 확실히 정하지 못한 탓이었다. 백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동녘이 다시 질문을 쏟아냈다.

"그럴거면, 처음부터 할아버지와 저와 함께 살면서 한재호에게 복수를 하면 됐잖아요? 왜 숨어있다가 이제서야 나타난 거죠? 그리고 죽음을 위장할 거면 굳이 나를 필요도 없었잖아요?"

백호는 이런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준비된 대답을 하기 시작했다.



"그건 내가 바실라를 피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야겠군. 그리고 너를 만든 이유는 바실라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로서 만든 거랄까? 마치 핵을 핵으로 막는 전략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겠나?"
"그럼 나는 신인류인가요? 애초에 내가 한재호에게 노출되지 않았다면, 한재호는 어차피 기술을 알아내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한재호는 이미 기술을 알고 있었을지 몰라. 나를 몇 번 실험에 사용했으니. 이미 내 기억에서 기술을 다 가져갔을 수 있어."
"그럼 왜 제가 나오기 전까지 완벽한 클론을 만들지 않았나요?"
"그건 한재호의 전략이지. 모두에게 맛보기용 상품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길들여졌을 때, 제대로 된 기술을 선보이면 다 자기에게 개처럼 엎드리게 되니까."
"지금 한재호는 자신의 몸도 클론하지 않고,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자기 몸조차 자유롭지 못해요. 그가 제대로 된 클론을 한다면 일단 그래도 자기 몸은 클론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도 죽을 뻔했다고요. 게다가 우리 할아버지! 서창 역시 기술을 안다면 왜 스스로를 클론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이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라는 듯, 백호가 고심하더니 대답했다.

"글쎄, 기술적으로 나는 완벽한 클론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할 수는 있지만… 철학적으로 완벽한 클론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랄까?"

동녘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백호가 이어 대답했다.

"지금 너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냐 하냐, 하는 문제 같은?"
"그럼 그때 제가 봤던, 클론하고 남은 본체를 죽이는 것에 대한 윤리적 담론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백호가 갑자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동녘, 너는 어느덧 내 말투를 따라하고 있군. 아니 따라하는 게 아닌가? 윤리적 담론 같은 말을 원래의 동녘이라면 구사하지 않았겠지만, 지금 내 기억이 돌아온 상태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나?"

동녘은 말문이 막혔다.

"그래, 바로 그런 문제야. 그럼 지금 너와 내가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면, 누굴 죽여야 할까?"

백호가 동녘에게 다가와 동녘의 손에 들린 총의 총구를 자기 이마에 갖다대며 말했다.

"자네가 선택해보게. 우리 둘 중에 누가 죽어야 하는지."

동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우리는 같은 기억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할아버지와 산 기억이 생겼고, 당신은 또 어디선가 살아왔어요. 그것까지 공유하고 있진 않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클론하고 남은 본체를 죽이는 건?"
"그건 저도 싫습니다."
"의식이 기억의 총체라는 말에 동의하나? 너도 이제 나만큼의 지식은 있으니 알아 듣겠지?"
"모르겠습니다."

백호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지. 모르겠지. 나도 모르겠다네. 그래서 나도 일단은 살아보고 있는 거야. 자네가 어떻게 살지도 궁금했고."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도 몰라. 다만 한재호가 바실라와 접촉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
"할아버지는 어딨습니까? 저는 그와 한 편이 되어야 하나요?"
"글쎄? 너는 네 편인가? 나는 지금 네 편인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늘 스스로를 미워하며 살고 있지 않나?"

동녘이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타, 백호가 동녘의 손에 들린 총을 빼앗았다.

"자네가 선택을 하지 않았으니, 내가 선택하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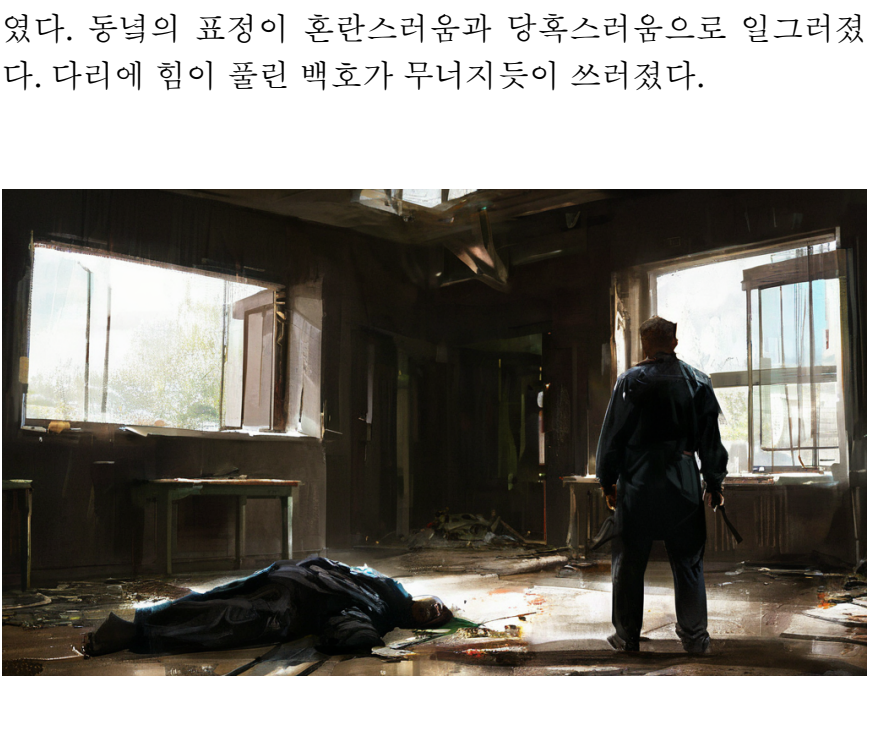
백호가 동녘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말했다.

"역할을 다한 자가 사라지는 게 맞네."

백호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로 올라갔다. 동녘은 눈을 감았다.

탕!

총성이 울림과 동시에 동녘이 몸을 움찔했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데 의아함을 느낀 동녘이 눈을 떴다. 백호의 머리 위에 뚫린 구멍으로, 피와 뇌수가 벽에 튀어있는 것이 통과되어 보였다. 동녘의 표정이 혼란스러움과 당혹스러움으로 일그러졌다. 다리에 힘이 풀린 백호가 무너지듯이 쓰러졌다.



❖

동녘이 있는 힘껏 오리엔티스 기지의 문을 열어 젖혔다.

"한 원장 어딨어!"

기지에는 침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동녘은 치수를 붙잡고 질문했다.

"한재호와 태웅이는 어딨냐고! 지금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한단 말야!"

치수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 태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원장님은 돌아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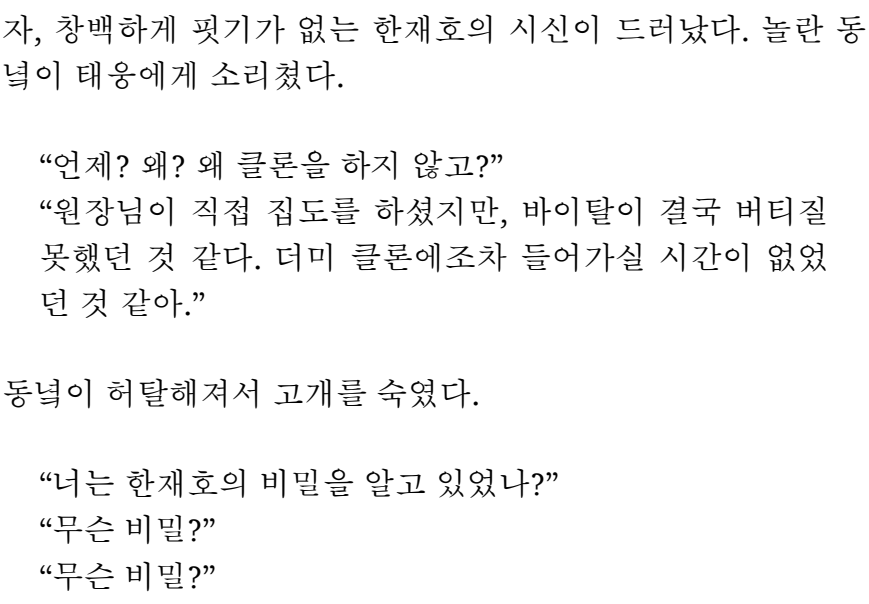
동녘이 뒤를 돌자, 태웅이 수술대 쪽을 가리켰다. 수술대 위에 흰 천이 덮여 있는 것이 보였다. 동녘이 다가가 흰 천을 걷어보자, 창백하게 핏기가 없는 한재호의 시신이 드러났다. 놀란 동녘이 태웅에게 소리쳤다.

"언제? 왜? 왜 클론을 하지 않고?"
"원장님이 직접 집도를 하셨지만, 바이탈이 결국 버티질 못했던 것 같다. 더미 클론에조차 들어가실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

동녘이 허탈해져서 고개를 숙였다.

"너는 한재호의 비밀을 알고 있었나?"
"무슨 비밀?"
"무슨 비밀?"
"한재호가 원래 나 몰래 기술을 빼돌리려 하고 있었단 사실?"
"뭐?"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백호가 서창과 손을 잡고 재호의 계략을 피하려 했단 사실?"

퍽! 소리와 함께 동녘의 얼굴에 끔찍할 만큼 고통스러운 통증이 느껴졌다. 태웅이 동녘의 얼굴을 가격해버린 것이다. 동녘이 바닥에 쓰러지자 태웅이 쓰러진 동녘을 내려다 보며 소리쳤다.



"도대체 넌 누구야? 네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 아버지인 척하더니, 이제 뭐? 원장님이 뭐?"

동녘이 입에서 흐르는 피를 닦으며 말했다.

"너도 내 안에 있는 기억을 봤잖아! 나도 네 아버지라는 게 황당하지만 그게 사실이야! 그리고 난 지금 백호를 만나고 왔어!"

어이가 없어진 태웅이 비웃음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 네가 백호라고 주장하더니, 이제 또 백호를 만나고 왔다고? 그럼 백호는 지금 어디에 있는데?"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더니, 스스로 죽었다."

태웅이 백호의 머리칼을 움켜쥐며 말했다.

"내 아버지 백호는 내 눈 앞에서 돌아가셨어! 나는 그걸 똑똑히 봤다고!"
"그래, 서창이 백호를 쏘고 그 시체를 들고 도망갔지. 하지만 백호는 아직 살아있었어. 그래서 나를 만들었고… 오늘 죽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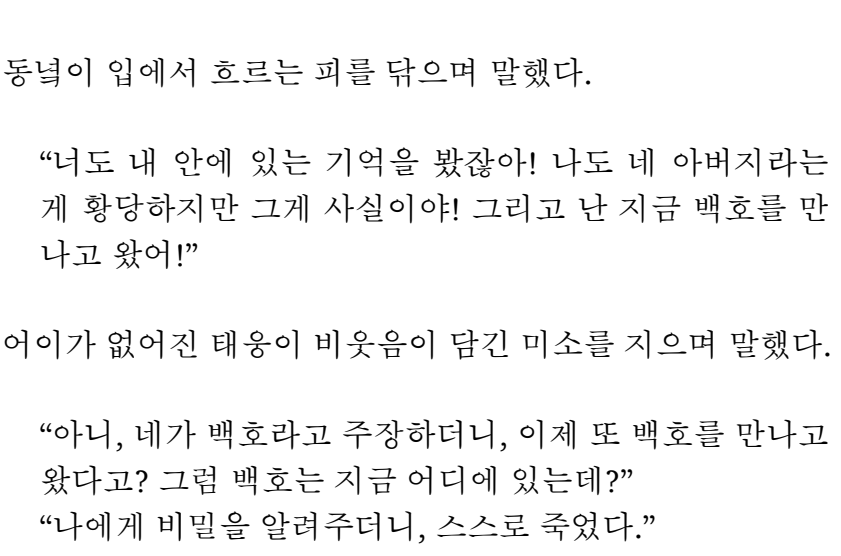
태웅이 뜸을 들이다 말했다.

"그래서?"

동녘이 당황하여 뒤에 덧붙일 말을 간신히 짜내었다.

"그래서 재호에 대한 비밀을 알려줬고, 나는 그걸 알리고 사실을 확인하러 온 거야."
"너, 네가 내 아버지든 아니든 그건 상관이 없어."

태웅이 더욱 강하게 동녘의 머리칼을 움켜쥐며 말했다.



"아니, 네가 내 아버지라면, 나는 더 좋아. 내가 너를 죽일 수 있게 됐으니까."
"태웅아!"
"내 아버지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 기술 때문이었는데, 그건 이미 확보가 됐어."

동녘의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너 때문에, 나는 다시 우리 엄마를 잃었어."
"그건…!"
"또 하나! 너는 지금 한 원장을 모함하여 오리엔티스의 근간을 송두리 째 엎어버리려 하고 있어. 어디서 누구와 내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
"한 원장님이 돌아가셨기에, 이제 오리엔티스의 원장은 자동적으로 내가 승계 받게 된다. 네가 백호건 아니건 너는 줄곧 외부인이었을 뿐이야."
"어쩌려고?"
"너를 외부 스파이와의 내통, 그리고 오리엔티스에 중대한 해를 끼친 혐의로 수감한다. 그리고 너는, 네가 내게 해왔던 것처럼, 실험 대상이 될 거야."

놀란 동녘의 눈동자가 커졌다. 태웅은 동녘의 머리칼을 잡아당겨 바닥에 자빠뜨린 뒤 실험실을 나가며 대원들에게 명령했다.

"동녘을 체포하고 수감하도록 해!"

동녘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대원들이 동녘을 체포하기 위해 달려오는데, 동녘은 품 속에 알지 못하던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넣어 그것의 정체를 확인해 보았다. 캣츠아이였다. 백호가 죽기 전에 동녘의 품 속에 넣어 둔 모양이었다. 동녘은 캣츠아이를 대원들이 찾지 못하도록 더 깊은 곳에 감추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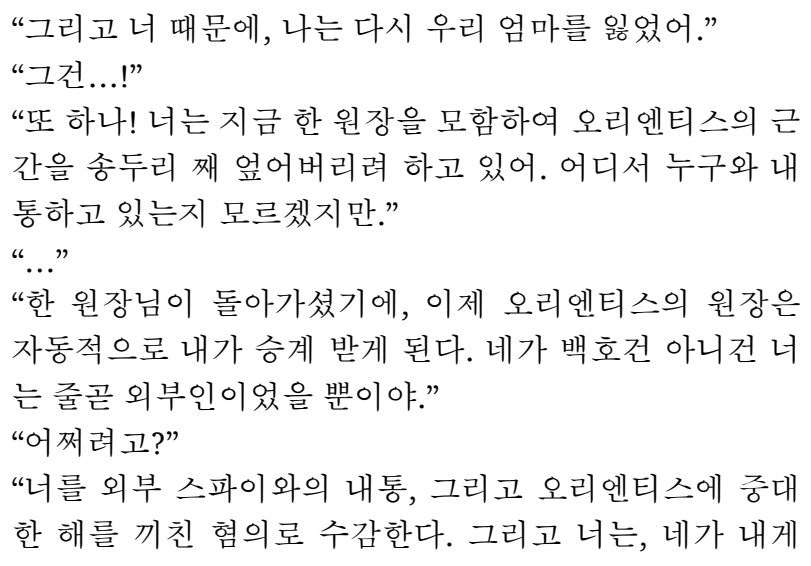
복도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오리엔티스 대원은 저 멀리서 또각또각 발걸음이 들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았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잘못 들었나? 복도를 더 유심히 살피려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툭툭 건드리는 것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 찰나, 라이딩 건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누군가의 손에 뜯겨져 나가더니,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케이블이 연결되었다. 대원의 눈이 뒤집히더니, 곧 의식이 연결되었다.

의식을 빼앗긴 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 케이블을 해제하고 동녘이 수감된 철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수감실 안으로 들어온 대원을 수감실의 보초 인원들이 의아한 눈빛을 바라보는데, 의식을 빼앗긴 대원은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파악할 새도 없이 보초들이 모두 쓰러지자, 대원은 죽은 경비의 지문으로 동녘이 수감된 수감실 철창 문을 열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동녘이 의아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대원이 스스로 머리에 총을 대고 자살했다. 쓰러진 대원의 뒤로, 대원에게 라이딩을 한 의문의 습격자의 정체가 드러났다.

"너는?"

그것은 바로, 네모의 부하 중 하나였던 지희였다.



Continued to ep.20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